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보도자료]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라! 퇴진행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6.12.12 작성자 교육선전실 Views 2028

보도자료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라! 퇴진행동 기자회견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문의 : 남정수/박진 공동대변인

 12월 9일,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 직무정지
 12월 13일,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선고일(1심 징역 5년, 2심 검찰 구형 8년)

- ▶ 2015년 1월, 민주노총 최초로 조합원 직선 위원장에 당선되어 임기 3년 시작
- ▶ 박근혜정권 남은 임기 3년과 임기 같지만 결코 임기를 같이 끝내지 않겠다 선언
- ▶ 2015년 내내 재벌청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 성사
- ▶ 청년과 비정규 노동자에게 권리와 희망이 되는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고 전면적 투쟁
- ▶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실규명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 호소한 위원장
- ▶ 이천만 노동자와 한 편이 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자 했던 위원장
- ▶ 2016년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징역 몇 년을 더 살더라도 감옥 안에서 박근혜 퇴진 정치총파업을 선언하고 싶어 했던 한상균
- ▶ 그렇게 가고자 했던 청와대 앞길이 열렸고, 그렇게 넘고자 했던 차벽이 없어진 위대한 민중의 촛불혁명이 이어지고 있는 2016년 오늘, 누가 갇혀야 하고 누가 자유로워야 하는지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 ▶ 2015년 임기 시작 하자마자 박근혜와 임기를 같이하지 않겠다고 했던 선언이 현실이 된 오늘, 누가 범죄자인지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 ▶ 12월 13일, 1년 먼저 촛불을 든 죄로 감옥에 갇힌 한상균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진행]

- ▶ 한상균은 무죄다. 한상균 석방 촉구 퇴진행동 대표발언
 - 퇴진행동 대표발언 1
 - 퇴진행동 대표발언 2
 - 퇴진행동 대표발언 3

▶ 박근혜 구속-한상균 석방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박근혜 구속 - 한상균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 한상균을 석방하라!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위대한 촛불의 힘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정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선실세와 재벌들이 이 사회를 주물렀고, 그 결과 시민들과 노동자의 권리는 무너지고, 소수만이 배를 불렀다.

지난 4년간 억눌린 민심은 마침내 폭발해 부패한 권력을 더는 그 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일어섰다.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민심은 구속과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촛불의 요구가 백 번 옳다.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들이다.

그런데 권력 앞에 침묵하다가 이제야 박근혜의 공범들을 기소하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하고, 5년형도 가볍다며 항소해 8년 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에 대한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과 거래하며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쉬운 해고를 관철시킬 노동개약을 밀어붙이려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개약시도를 막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도록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했다.

정부는 이것을 불법이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도 불법이라 한다.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 1백미터 앞 행진을 이뤄낸 지금, 1년 전 박근혜 정권이 저항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거리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누구였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시위 대열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인 물대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공식적 사과도 없었다.

검찰과 법원은 살인적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법원과 검찰도 범죄자 박근혜 정부의 공범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 사흘 전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었다.

저항이 감옥에 갇히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이 은폐되는 이 땅에 인권이 제대로 설 자리는 없다.

철창 안에 들어갈 것은 부패비리의 주범 박근혜와 공범들이며, 그가 재벌과 더불어 만들어낸 성과퇴출제 노동개약 등 온갖 나쁜 정책들이다.

12월 13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촛불의 눈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다시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석방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이 하루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언제나 처럼 노동자-민중의 편에 서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촛불이 바로 세우려는 정의이다.

2016년 12월 12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List

2016년 12월 12일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